전남도, 관광신산업 창업 적극 지원

일상회복에 여행수요 늘어
예비창업자 30명 대상
실무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전남도가 최근 일상회복과 맞물려 여행수요가 늘면서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새로운 여행 추세에 맞춘 관광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12일 "지난 4월 모집한 관광 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30명을 대상으로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13일까지 3일간 예비 창업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예비창업자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자가 실제 창업에 이르기까지 겪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실제 부딪쳐 모색해보는 실전 전략 압축 교육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창업, 기업경영 등과 관련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기법인 젠 캔버스(ZEN Canvas)를 활용, 예비창업자가 기획한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창업에 이르도록 체계화할 방침이다. 젠 캔버스는 ▲시장, 트렌드 등 기회탐색 ▲아이디어 발상 및 콘셉트화 ▲실행 및 테스트 ▲학습 및 피드백의 순환 구조를 통해 입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법이다.

예비창업자는 사업 아이템 구체화, 고객문제 발견 및 세분화, 경쟁사 분석과 경쟁우위 전략 등 창업가 마인드맵을 스스로 그려보는 실무 전략을 체험한다. 또 유사업종 예비창업자를 그룹화해 관련 분야 10여 명의 전문 멘토단 컨설팅과 팀별 아이템 토론을 통해 창업화 전략을 진단하고, 사업모델링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성공 창업에 이르도록 교육한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예비창업자 간 소통하고 분야별 전문 멘토단을 통해 창업역량을 키워가길 기대한다"며 "관광 신산업의 지속적인 맞춤형 밀착 지원으로 성공적 창업이 이뤄지도록 세심한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과 19일 사업계획서 발표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15팀 내외를 선발, 분야별로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관광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오는 6월 14일 전남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청정힐링안심쉼터, 전남으로 오세요'를 슬로건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서비스 향상, 국내외 빅이벤트 행사 개최, 전남관광플랫폼(J-TasS) 신속 구축 등에 나선다. 전남관광플랫폼(J-TasS)은 5개 국어로 전남도내 스마트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모빌리티, 예약 결재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전 서구 광주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2022 현대 양궁월드컵 미디어 데이'에 참석해 대회 준비상황 등을 설명한 뒤 토마 오베 세계양궁연맹(WA) 이벤트마케팅 책임자, 김성훈 양궁 국가대표 감독 등 참석자들과 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 양궁월드컵 준비 이상무"

17일 개막 앞두고 미디어데이
38개국 궁사 381명 6일간 열전

세계 38개국 대표 궁사 381명이 광주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금빛 과녁을 겨냥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구슬땀을 쏟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시체육회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대회 현황과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행사에는 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김성훈 양궁 국가대표 총감독이 참석했다. 대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리며, 대회에는 38개국 선수 270명·임원 111명 등 381명이 참가한다.

예선·본선전은 17~20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결승전은 21~22일 광주여대에서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 스타 안산과 김제덕 선수 등 16명의 대표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예선·본선 경기는 국제양궁장 2층 관람석에서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며 결승전은 예약·관람할 수 있다. 결승은 SPOTV에서 생중계한다.

양궁 월드컵은 3년 후 광주에서 열리는 2025 광주 세계선수권대회의 전초전 성격의 행사다. 양궁 월드컵은 하계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와 더불어 양궁 3대 대회로 꼽힌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스페인 마드리드를 제치고 세계양궁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전·자동차산업 분야
광주시, 취업·고용지원

광주시는 "관내 소재 가전 및 자동차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과 동일 분야 경력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및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고용환경개선 사업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500만원씩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의 개·보수 공사비를 지원한다. 단 관내 소재 가전·자동차분야 중소·중견기업, 1명 이상 정규직 신규채용 등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기술혁신 분야 기업컨설팅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 고용안정 취업지원센터(062-603-7600~7603, 7605)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1 선거공감' 기고 〈3〉

유채꽃 필 무렵, 다음 선거를 기다리며

이하늘
광주시 북구 선관위 사무보조원

곧 있으면 무려 7가지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년 만에 개시된다. 불과 며칠 전 우리는 대통령선거라는 큰 파도를 넘겼음에도 긴장감이 사라지기는커녕 거대한 파도가 다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모든 선거에 경중은 없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있어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가장 힘든 선거라고 들은 적이 있다. 투표용지만 해도 한 사람당 7장이 주어지는데 그것들을 모두 투·개표해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무원과 시간이 필요할까?

선거철이 시작되면 업무는 파도의 연속이다. 후보자를 위한 선거 사무 책자나 각종 투·개표 관련 매뉴얼 등이 오면서 파도가 시작된다. 광주광역시 북구에는 무려 28개의 동이 포함돼 있다. 전국에서도 얼마 안 되는 큰 규모의 행정구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선관위로 간단한 매뉴얼이 올 때도 그 양은 전혀 간단하지 않다. 이후에 그 매뉴얼과 여러 가지 종류가 포함된 물품을 28개 동 전체에 배부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투표소에 쓰이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포함한 장비는 130여개나 운용되는데, 그 모든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해야 했을 때 한숨이 절로 쉬어졌다.

물품은 여러 번에 걸쳐 각 행정복지센터로 배부된다.

항상 적지 않은 물품들이 배부되기 때문에, 배부하는 우리도, 물품을 받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도 고생을 면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배부할 때마다 거의 모든 직원분이 나오셔서 물품을 받아주셨던, 또 맨손으로 일한다며 장갑을 쥐여주셨던 행정복지센터가 기억에 남아있다.

가장 큰 파도는 무엇보다 개표일이다. 그날은 선거관리 업무의 꽃이 피는 날이고, 계속되는 추가 근무로 인해 생긴 피로가 모여서 가장 높은 파도가 세워지는 순간이다. 그 넓은 개표장을 마주할 때마다 견딜 엄두가 나지 않았다. 모든 직원이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전부 지쳐있는 상태였다. 그런 채로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들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개표 장비들을 또 한 번 점검했다. 개표 당일, 대통령선거 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개표장으로 모였고, 모두가 한 뜻으로 소중한 투표권이 행사되도록 만들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전보다 더 넓은 개표장에서 더 많은 사무원이 모인다. 이렇게나 큰 규모의 선거인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관심과 투표율은 대통령선거보다 낮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상당히 적고, 후보자를 마주하는 매체와 순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과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 종류와 후보자 수가 많아서 복잡하고, 후보자와 마주하 는 순간은 거의 공보물을 받을 때가 유일할 것이다. 그렇다면 높은 투표율을 가지는 대통령선거가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중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후보자와 마주하는 순간은 적을 수 있지만, 후보자의 공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실현될 것이다.

꼭 후보자들의 공개 정보와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당신만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내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성공 개최 시동

예술계·학계·기획전시 등
전문가 34명 자문위 구성 회의

전남도가 12일 전남개발공사에서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첫 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고 성공 개최 의지를 다졌다.

수묵비엔날레 자문위원은 수묵과 비엔날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예술 분야에 뛰어난 식견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했다. 예술계, 학계, 전시·기획, 유관기관 등 4개 분야 34명이 참여했으며 임기는 2024년 4월 11일까지 2년이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자문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감독 선임방안과 선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논의했다. 문금주 권한대행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께서 참여해 2023 수묵비엔날레의 성공 기대감이 크다"며 "수묵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열리는 수묵비엔날레가 세계 속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도록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회째를 맞는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수묵 전시, 학술대회, 국제레지던시, 교육·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2회 대회인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40여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 79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